

[홈](#) > [뉴스](#) > [정치](#) > [경기](#)

## 판교 테크노밸리 1·2차 이중분양업체 동일대표이사 추가확인

2006년 10월 16일 (월)

박춘대 ✉ [pcd@kyeongin.com](mailto:pcd@kyeongin.com)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가 분양한 판교테크노밸리를 특정업체가 법인명만 달리해 중복분양 받은 것과 관련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0월11일자 1면보도), (주)레인콤과 (주)아이리버 이외에도 사실상 대표이사가 겹치는 경우가 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도와 공사가 분양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나 '땅장사를 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5일 경인일보가 중복분양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판교실리콘파크조성조합과 아이리버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의 소유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미 알려진 (주)레인콤과 (주)아이리버 뿐만 아니라 (주)원익쿼츠-(주)아이피에스도 사실상 동일인의 소유하에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주)원익쿼츠와 (주)아이피에스의 이사로 등재돼 있는 이용한씨는 이들 회사 지분을 각각 48.4%, 48.19%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추정된다.

또 이씨는 (주)아토의 지분 7.9%를 소유하고 있고, 이씨가 최대주주인 (주)아이피에스는 (주)아토의 지분 32%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가 '원익쿼츠-아이피에스-아토'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밖에 (주)엑시콘의 대표이사인 최명배씨가 디에이치케이솔루션(주)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는 것이 추가 확인됐다.

이같은 관계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어서, "신청법인이 다를 경우 별개의 사업자로 본다"는 경기도 해명에 대한 법적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도와 공사는 연구지원용지와 주차장용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최소 2천550억원을 남겨 땅장사를 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기지방공사가 열린우리당 유필우(인천 남갑) 의원에게 제출한 토지공급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판교테크노밸리를 토지공사로부터 평당 750만원에 공급받은뒤 필지별로 적게는 710만원에서 많게는 2천79만원까지 분양, 미분양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2천550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과도한 시세차익은 결국 땅값상승 요인이 돼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중복특혜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 판교테크노밸리 중복분양 임원겸직 현황

| 임원명 | 1차(A-1구역)<br>판교실리콘파크 조성사업조합 |                         | 2차(A-2-1구역)<br>아이리버 컨소시엄 |                          | 관 계      |
|-----|-----------------------------|-------------------------|--------------------------|--------------------------|----------|
|     | 회사명                         | 직 위                     | 회사명                      | 직 위                      |          |
| 양덕준 | (주)레인콤                      | 대표이사                    | (주)아이리버                  | 대표이사                     | 자회사      |
| 이용한 | (주)원익쿼츠                     | 이사→지분 48.4% 소유→실질적 대표이사 | (주)아이피에스                 | 이사→지분 48.19% 소유→실질적 대표이사 | 원익쿼츠 자회사 |
| 장호승 | (주)아토                       | 이사                      | (주)아이피에스→(주)아토지분 32% 소유  | 대표이사 (지분 2.73%)          | 자회사      |
| 최명배 | (주)엑시콘                      | 대표이사                    | 디에이치케이솔루션(주)             | 대표이사                     | 자회사      |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